

# 목포시, 목포대 '글로벌대학30' 적극 지원

市·대학 협력 기반 마련 성과  
5년간 자체 예산 120억원 투입  
박홍률 시장 대면 심사장 방문  
“지방대학 위기, 기회로 전환”



목포대학교가 '글로벌 대학 30' 지정 평가에 선정된 가운데 박홍률 목포시장이 국립목포대학교 전남글로벌혁신포럼 발대식에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목포대학교가 '글로벌 대학 30' 지정 평가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박홍률 목포시장을 비롯한 목포시의 전폭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됐다는 평가다.

'글로벌 대학 30' 사업은 교육부가 2026년까지 전국에서 30개 대학을 선정해 지역 사회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목포대학교는 이번 글로벌 대학 30 선정으로 5년간 국비 1000억원을 포함해 정부의 범부처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목포시는 글로벌 대학 30 선정을 위해 시비 지원을 약속했으며, 이후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120억원(5년간 지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 대학 존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목포대학교는 친환경 무탄소 선박과 그린 해양에너지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대학을 비전으로, 목포 캠퍼스의 메디컬 시티와 재생 바이오 의약 허브 조

성,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개발, 목포신항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 등 특화 분야 중심 전략으로 글로벌 대학 실행 계획을 준비해 지난 4월에는 예비 지정 대학으로 지정된 바 있다.

글로벌 대학 본지정을 위해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대학교와 협력해 지·산·학 거버넌스(governance-전남글로벌혁신포럼)에 참여하고, 실무협의를 거쳐왔으며, 예비지정부터 본격화까지 지·산·학 협력 기반을 완벽하게 구축해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 여건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선정에서는 박홍률 시장이 대면 심사장에 직접 방문해 목포대학교의

강점과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번 목포대의 글로벌 대학 30 본지정은 목포시 전체의 큰 자랑이자, 지방대학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목포대는 이번 본지정을 통해 △실버메디컬 시티 조성 △중소형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조성 △목포신항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 등 목포시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대학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 목포시·LH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협약

임성지구 도시개발 신속추진

목포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난 28일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목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날 임성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현안과 주민 부담 최소화 방안 등에 양 기관이 공동으로 모색하고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이후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남 서남권의 관문인 임성역을 포함한 옥암·석현동 일대의 약 60만평의 부지를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더 이상의 인구유출을 막고 목포의

도시 경쟁력을 도모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목포시 임성지구는 무안군 남악오룡지구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능한 목포의 유일한 지역으로, 무안·신안·영암 등의 서남해안권발전의 중심에 있는 곳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경영투자심사, 지장물 보상 등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진척 속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홍률 시장은 "임성지구가 2008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아왔다. 더 이상 개발이 늦춰지지 않고 지금이라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 다사랑봉사회가 지난 28일 이로동·하당동 내 경로당 어르신 30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목포교회에서 건강기원 전복죽을 대접했다.

목포시 제공

## 구정치 주광주중국총영사, 목포시 방문

목포시는 구정치 주광주중국총영사가 지난 28일 호남지역 대중 교류 및 협력 확대와 관광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목포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지난 1992년부터 중국 렌윈강시를 비롯한 사면시, 동강시, 저우산시 등 4개 성(省) 4개 도시(都市)와 활발히 교류중에 있으며, 구정치(顧景奇) 총영사의 이번 방문은 올해 2월 주광주중국총영사관으로 부임한 이후 첫 예방이다.

박홍률 목포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총영사와의 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목포관광이 주된 화제로 다뤄졌다.

구정치(顧景奇) 총영사는 이날 간담회 이후 우리 시 대표 관광지인 '근대역

사관1관' 등 목포 근대역사문화자원을 탐방하고, 유달산과 바다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목포해상케이블카'를 탐승해 낭만 가득한 항구도시 목포의 면모를 확인했다.

구정치 총영사는 "목포시에서 보여주시는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목포를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박홍률 목포시장 역시 "이번 구정치 총영사의 목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목포시와 주광주중국총영사관 간에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를 통해 목포를 널리 알리고 상호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 (주)케이케이중공업, 우수인재 양성 장학금 1천만원 기탁

목포 연산동에 위치한 (주)케이케이중공업(대표 최종근)이 지난 28일 목포인재육성재단에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주)케이케이중공업은 선박 구성품 제조를 목적으로 지난 2014년 5월 설립돼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획득, 기술보존기금 안전 경영 혁신

우수기업 등에 선정된 바 있다.

최종근 대표는 "목포의 인재육성을 이끌어가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훗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인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의 학생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 목포 다사랑봉사회, 이로동·하당동 전복죽 나눔행사

목포 다사랑봉사회(회장 김태운)가 지난 28일 이로동·하당동내 경로당 어르신 30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목포교회에서 건강기원 전복죽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난 2022년부터 3년째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버스 13대로 18

개 경로당을 순회한후 어르신들을 직접 초청해 진행했다.

우리목포교회(목사 이정태, 하당동 소재)는 장소 제공과 자원봉사를 진행해 어르신 공양과 사랑 실천의 의미를 더욱 고취시켰다.

특히 안전한 행사와 코로나19 확산 방

지를 위해 전문방역업체를 통한 소독,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세정 등을 실시했다.

김태운 회장은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나신 어르신들의 건강회복을 위해 영양만점 전복죽을 제공하게 되었는데, 맛있게 드시는 모습에 오히려 힐링을 맛보듯듯해 흐뭇한 하루였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 목포농협, '직장 내 갑질' 논란 고소·고발전 확산

농협중앙회 사실여부 확인중  
업무 실수 유도해 직원 압박

목포에 위치한 단위농협 한 임원 A씨의 갑질로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농협 직원들이 A씨를 직장 내 갑질 혐의로 고용노동부와 농협 본사에 고발하자 A씨가 목포농협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임직원 간 고소·고발전까지 난무하고 있다.

29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목포농협 A씨에 대한 직장 내 갑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목포농협 직원 8명은 지난해 8월 비상임감사로 선출된 A씨가 사무실 직원들에게 사사건건 징계를 주겠다고 폭언을 일삼거나 과도한 자료를 요구해 업무를 마비시키는 행위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A씨의 갑질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다.

한 농협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임원과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보고할 것을 강요하며 징계를 내리겠다고 욕설을 퍼붓거나, 이미 발송한 공문을 농협 직원에게 자신의 회사까지 직접 들고 오라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

직원에게 실수를 유도한 뒤 이를 통해 압박하는 등 갑질 행위가 반복됐다는 것이 목포농협 직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직원들은 감사업무를 보는 A씨의 자료 요구로 인한 업무 과중도 호소하고 있다. 그는 올해 1월 결산감사 당시 목포농협 신용과, 기획과, 총무과에 전산 관리되고 있는 경비 지급회의서 1년치를 육하원칙에 따라 건별로 세세하게 작성해 다시 제출토록 요구했다.

결국 농협 직원들은 밤을 세며 수 천건

에 달하는 경비 지급 내역서를 일일이 분석해 제출해야만 한 것.

A씨의 갑질이 극에 달하자 직원들은 지난 4·5월 3차례에 걸쳐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전개했다.

그러나 A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의명을 요구한 목포농협 한 관계자는 "과도한 자료요구와 반복되는 폭언으로 인해 정상적 업무 수행이 어려울 지경이다"며 "자료를 요구한 뒤 특정감사나 경찰 수사를 받게 하겠다는 등 으름장을 놓는 탓에 직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모든 요구는 감사업무의 일환으로서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며 "현재 사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